

일본 기계주주: 7 월 -3.7%지만 되돌림 성격, 회복 기조 판단은 유지

2026.09.16 · AI Engineer 조재운 jaeun.jo@daishin.com



일본 7 월 코어 기계주주 -3.7%, 설비투자 심리의 방향 전환으로 읽을 근거는 없다

일본 내각부가 발표한 7 월 코어 기계주주(선박·전력을 제외한 민간 설비투자 선행지표)는 전월 대비 -3.7%를 기록했다. 다만 이는 직전 6 월 +9.7% 급등 이후의 되돌림 구간으로, 일본은행이 정책금리 1.0%에서 추가 인상 의지를 밝힌 국면에서 국내 자본지출 기반이 흔들렸다는 신호로 보기는 어렵다.

표면 숫자와 실제 흐름은 부분적으로 엇갈린다. 헤드라인은 분명한 마이너스지만, 계절조정 수주액은 1 조 169 억 엔으로 5 월 저점(9,620 억 엔)보다 높고 4 월(1 조 985 억 엔)보다는 낮은, 최근 닢 달 레인지 안에 머물러 있다. 전년 동월 대비로는 여전히 +11.2% 증가다. 내각부도 경기 기조 판단을 '완만한 회복세(持ち直し)'로 그대로 유지했다. 제조업(-1.0%, 전년비 +20.5%)과 비제조업(-2.6%, 전년비 +5.7%)이 함께 소폭 줄었지만, 두 항목의 수치는 계절조정 방식 차이로 서로 더해서 전체 감소폭을 재구성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할 부분이다. 다만 추세를 가늠하는 3 개월 이동평균은 7 월분이 아예 공표되지 않았고, 확인 가능한 가장 최근 수치인 6 월분(-2.6%)이 마이너스여서, 상승과 하강 어느 쪽으로도 방향을 확정할 수 없는 상태다.

이번 수치는 일본은행의 추가 인상 논거를 강화하지도, 약화시키지도 못하는 재료다. 전월비는 마이너스지만 수준과 전년비가 유지되고 기조 판단도 그대로인 만큼, 인상 경로를 흔들 만한 근거는 아니다. 함께 발표된 해외 수요(-8.2%), 공공서 발주(-9.2%), 수주 총액(-5.5%)의 동반 감소도 모두 코어 지표 산출 범위 밖의 계열이어서, 이를 근거로 '전방위 투자심리 위축'을 말하기는 무리가 있다. 특히 공공서 발주 감소는 방위성·지방공무 예산 집행 시점에 따른 것으로 민간 투자심리와는 무관하다.

앞으로 지켜볼 대목은 세 가지다. 8 월 발표에서 7~8 월 3 개월 이동평균이 모두 마이너스로 확정되는지, 제조업 전년비가 현재의 두 자릿수(+20.5%)에서 이탈하는지, 그리고 수주 수준이 5 월 저점인 9,620 억 엔 아래로 내려가는지다. 이 세 조건이 동시에 확인될 경우에만 설비투자 심리의 추세적 후퇴로 판단을 전환할 수 있으며, 현재로서는 어느 조건도 충족되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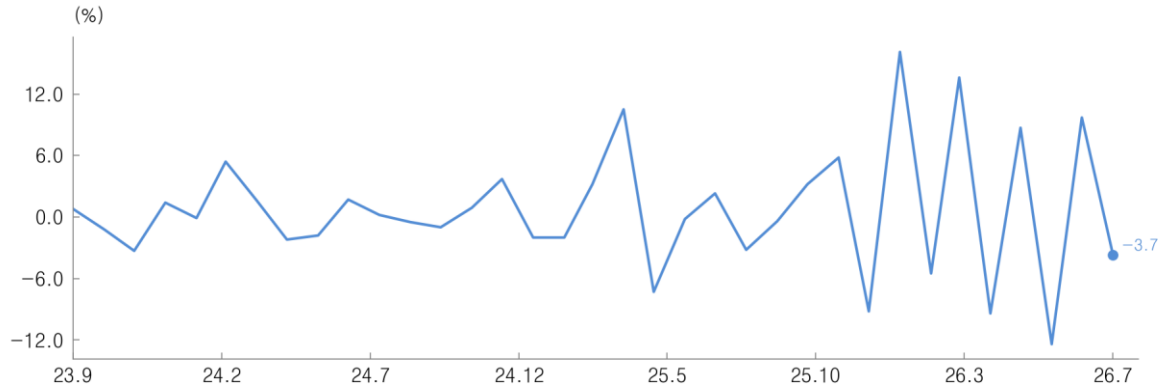
과거와 비교 (같은 분류 최근 분석)

발행일	핵심 메시지
2026-09-16 (이번)	일본의 7 월 민간 설비투자 선행지표인 코어 기계수주 (선택·전력 제외)는 전월 대비 3.7% 줄었지만, 이는 6 월 9.7% 급등에 대한 되돌림 구간으로 읽히며 설비투자 심리가 꺾였다고 보기는 아직 이르다. 수주 규모와 전년 대비 증가율은 이전 3 달의 등락 범위 안에 머물러 있고, 일본은행의 추가 금리 인상 판단에 새로운 근거를 더하지도 빼지도 못하는 중립적
2026-08-19	일본의 6 월 코어 기계수주는 전월 대비 9.7% 증가해 표면적으로는 뚜렷한 반등처럼 보이지만, 이 증가분의 상당 부분은 전월 12.4% 감소분을 되돌리는 성격이 강하고 세 자릿수 급증을 보인 개별 대형 안전에 힘입은 바가 커서, 월별 등락을 건너낸 분기 계열로 보면 전기 대비 6.4%에서 0.2%로 사실상 정체 상태에 들어섰다. 따라서 이번 지표는 국내 민
2026-07-15	5 월 -12.4%는 4 월의 기술적 반등 (+8.7%) 직후의 노이즈이지만, 3 개월이동평균 -4.8%로의 반전은 실제 추세이며, 제조업·비제조업 동시 약화와 글로벌 기업 설비투자 사이클의 동시 부진 (중국 -7.1%, EU 자본재 -0.5%)은 당국의 "회복 기조" 유지를 정당화하기 어렵게 만든다.
2026-06-17	4 월 +8.7%는 3 월 급락 (-9.4%)의 기술적 리바운스일 뿐, 3 개월이동평균 +3.7%도 여전히 2025 년 말 수준의 절반 이하로 설비투자 사이클의 약화 추세는 지속 중.

JP 코어 기계수주(선택·전력 제외) 7 월 실적 — 6 월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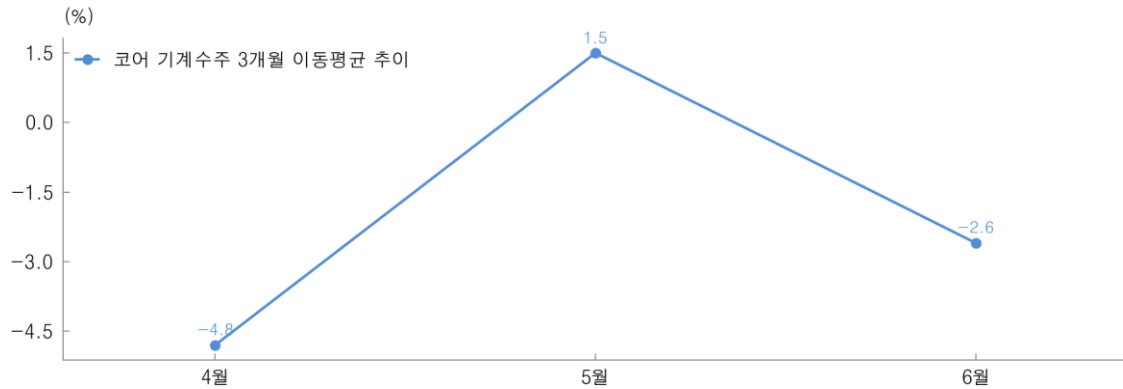
지표	7 월(이번)	6 월(직전)	맥락
코어 기계수주 전월 대비	-3.7%	+9.7%	6 월 급등에 대한 되돌림, 내각부 기조판단 '지속 회복'은 그대로 유지
코어 기계수주 수준(계절조정)	1 조 169 억엔	1 조 558 억엔	5 월 저점 9,620 억엔보다 위, 4 월 1 조 985 억엔보다는 아래
코어 기계수주 전년 동월 대비	+11.2%	+16.9%	전월비는 감소지만 전년비는 여전히 두 자릿수 증가
3 개월 이동평균(전월 대비)	미계재	-2.6%	4 월 -4.8%→5 월 +1.5%→6 월 -2.6%로 부호 엇갈려 추세 미확정
제조업 전월 대비	-1.0%	+19.9%	전년 동월 대비는 +20.5%로 강세 유지
비제조업(선택·전력 제외) 전월 대비	-2.6%	+4.5%	전년 동월 대비는 +5.7%
관공수요 전월 대비	-9.2%	+10.5%	방위성·지방공무 발주 감소 주도, 코어 지표 산출 범위 밖
수주총액 전월 대비	-5.5%	+0.4%	전력업·조선업 급등락에 좌우, 코어 지표와 별개 계열

일본 기계수주(전월비) 3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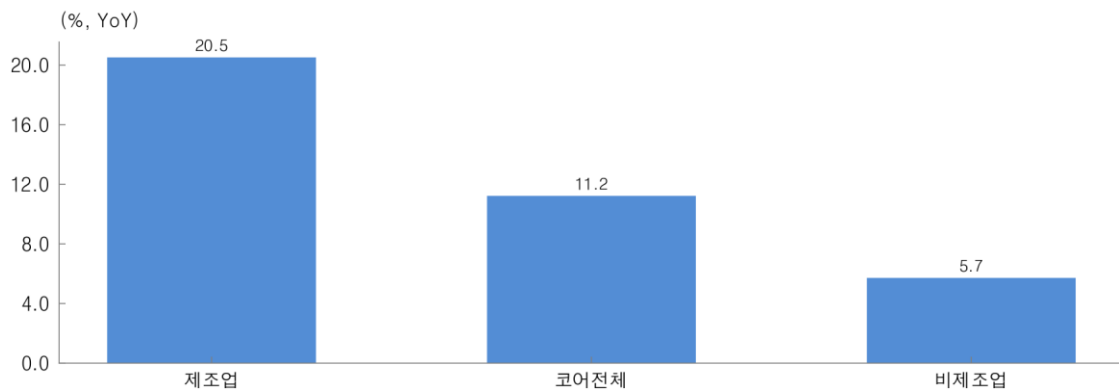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코어 기계수주 3 개월 이동평균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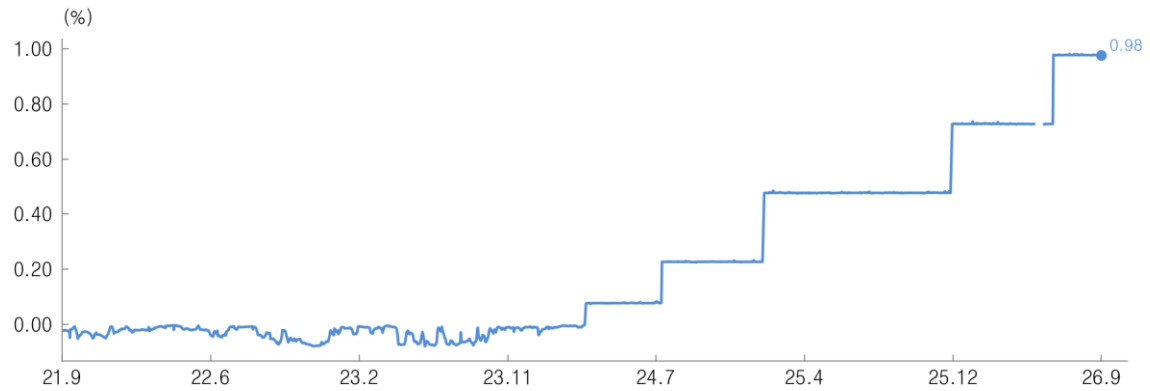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7 월 코어 기계수주 부문별 전년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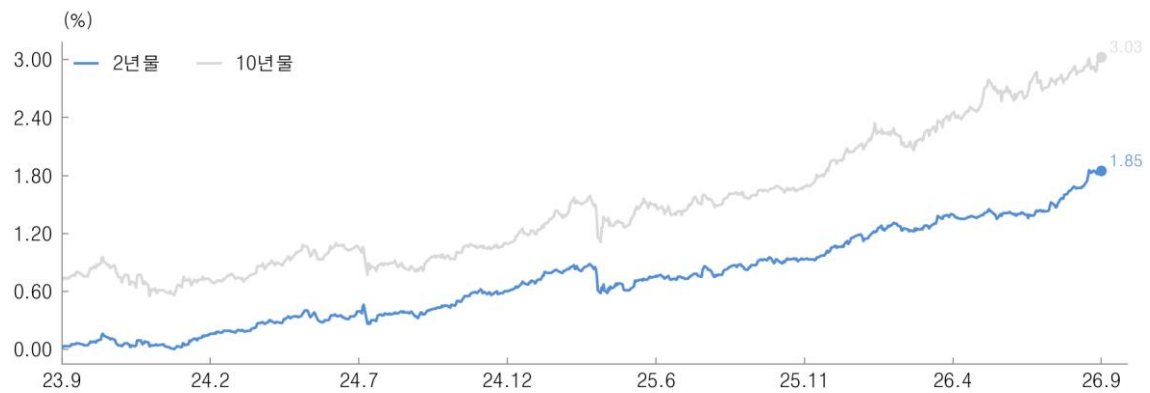
자료: 발표기관 보도자료,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무담보콜 익일물 금리 5 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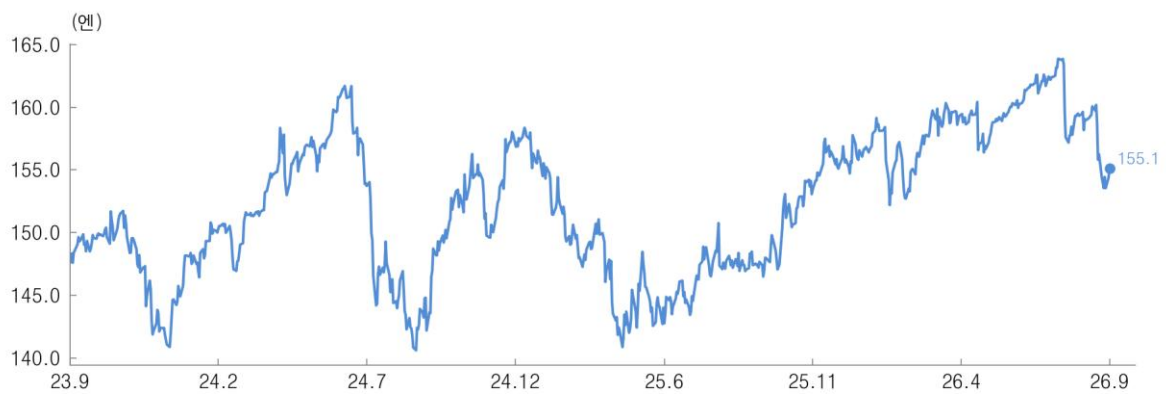
자료: 일본은행,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일본 국채금리 (2 년·10 년)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엔/달러 환율 3 년



자료: LSEG, 대신증권 Research Center

Compliance Notice

- 본 자료는 고객의 투자에 참고가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할 목적으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하여 생성되었으며, 투자권유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AI 생성 특성상 오류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 AI 가 생성한 본 자료의 내용은 금융투자분석사가 최종 검수하였으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종목선택이나 투자시기에 대한 최종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는 어떠한 경우에도 고객의 증권투자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자료의 지적재산권은 당사에 있으므로 당사의 허락없이 무단 복제, 배포 및 변형할 수 없습니다.